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4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원유순 글 | 이지선 그림 | 웅진주니어 | 140쪽

독서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산골 아이 나더덕〉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2) 책 제목 ‘산골 아이 나더덕’을 보고,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요?

⇨

3) 앞표지의 그림과 책 제목으로 보아,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

4)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딱 네 집뿐이지만, 난 친구가 많아.
꼬꼬댁 암체랑 생쥐 까망이, 산 너머 구석골 예랑이도 있어.
난 교실 없이 공부하고, 친환경 변소에서 똥을 굴리고,
나무 난로에 밤이랑 고구마도 구워 먹어.
그래도 외로우면 구름에게 내 소원을 얘기하지.
엄마, 내가 사는 산골로 한번 와 봐.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나요?

⇨

어휘력 쑥쑥 키우기(1)

이름 :

💡 다음은 〈산골 아이 나더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나는 할머니 집 쪽마루에 호박전 접시를 내려놓았다.
 “음마나, 어쩔 이리 야무지게 부친겨?” / 할머니 입이 헤 벌어진다.
 · 내가 얼굴을 찡그리자 할머니가 합죽대며 웃음을 지었다.
 · 아빠와 나는 범바위 위에 올라가 발돋움을 하며 사방을 살펴보았다.
 · “넌 내가 언제 눈 빠지게 기다렸다고 그래.”
 예랑이가 예술이에게 종주먹을 들었다.
- (나) “영은이 너, 더덕이한테 자랑하려고 갖고 왔지?”
 4학년 민수가 영은이에게 통을 주었다.

1)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을 (가)의 밑줄 친 낱말에서 찾아 쓰시오.

- | | | |
|---|---|--|
| ① 쥐어지르며 올려댈 때의 주먹을 이르는 말. | ⇒ | |
| ② 키를 돋우려고 발밑을 괴고 서거나 발끝만 디디고 섬. | ⇒ | |
| ③ 이가 빠져 입술과 볼이 오므라진 사람이 입을 자주 움직인다. | ⇒ | |
| ④ 사람의 성질이나 행동, 생김새 따위가 빈틈이 없이 꽤 단단하고 굳세다. | ⇒ | |

2)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을 (나)에서 찾아 한 글자로 쓰시오.

통명스러운 편찬.

⇒

어휘력 쑥쑥 키우기(2)

이름 :

💡 다음은 〈산골 아이 나더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는 내가 알기로 지금은 고등학생이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아직도 초등학교 때 사진을 갖고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이다.
- 그때 뽀로가 번개처럼 후다닥 풀숲으로 달려갔다. 눈 깜짝할 새였다.
- 아빠도 풀숲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꼴꼴 찻다.
- “에이, 쫓쫓.” / “아빠, 무슨 일이에요?”
- “고양이란 놈이 다람쥐를 공격하는 걸 보고 뽀로가 달려간 거야.”
- “허허, 더덕이도 일주일 내내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나) “오 남매 모두 도시에 살고 있는데, 아들딸 얼굴 보기가 ()에 () 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다.

1) (가)의 밑줄 친 관용적 표현이 지닌 뜻을 바르게 연결하십시오.

- | | |
|------------------|-------------------------------|
| 입에 침이 마르도록(다) · | • ① 매우 짧은 순간. |
| 눈 깜짝할 새 · | • ② 몹시 애타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
| 혀를 꼴꼴 찻(차)다 · | • ③ 마음이 언짢거나 유감의 뜻을 나타내다. |
| 눈이 빠지게 기다렸(리)다 · | • ④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거듭해서 말하다. |

2) 다음은 (나)의 밑줄 친 속담이 지닌 뜻이다. 이를 참고하여 (나)의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순서대로 써 넣어 속담을 완성하십시오.

어떤 일이나 물건이 어찌다 하나씩 드문드문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국어 문법 실력 쑥쑥 키우기

이름: _____

다음 〈산골 아이 나더덕〉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야!” / 화가 나서 압체를 발로 걷어차려 했다. 그러자 압체는 난리라도 난 것처럼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도망갔다. 그 바람에 나는 헛발질을 하고 말았다. 압체는 ㉠엄살 기도 하다.

병아리들이 제 엄마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줄 알고 뻑뻑거리며 아우성을 쳤다.
“더덕아, 뭐하는 거냐!” / 아빠가 나를 보고 야단을 쳤다.

(나) 나는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제 새끼를 해코지하려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 사납게 구는 게 당연하지.”
“핏, ㉡싸움 압체.” / 나는 압체를 향해 눈을 흘겨 주었다.

1) 다음은 ‘-쟁이’와 ‘-장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가)와 (나)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쓰고, ㉠과 ㉡의 뜻을 쓰시오.

-쟁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함.
-장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함.

- ⇒ • (가)와 (나)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 : (_____)
- ㉠의 뜻 : (_____)
- ㉡의 뜻 : (_____)

2) (가)의 ‘헛발질’은 ‘헛-’과 ‘발질’로 쪼갤 수 있는 낱말이다. 이때 ‘헛-’이 지닌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 쓰시오.

⇒ _____

독해력 짱짱맨 되기 ①

이름 :

💡 다음 〈산골 아이 나더덕〉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한다.

내가 살고 있는 윗범실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배울 게 정말 많다. 우리 아빠 말씀이지만, 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나) 아빠는 횡단보도에서 총알택시로 사람을 들이받고 말았다.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서둘러 집으로 가던 50대 아저씨였다. 아빠는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합의금으로 아저씨네 가족에게 주었지만, 아저씨의 죽음을 대신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랐단다. 그래서 택시 기사 자격을 잃고, 교도소에서 삼 년을 지내야 했다.

(다) “어머니, 감옥에 갔다 왔다고 취직이 잘 안 돼요. 시골로 가서 농사지을래요.”
여기저기 취직자리를 알아보던 아빠가 말했다.

(라) “좋아, 넌 까만 눈이 예쁘니까 까망이로 불러 줄게. 알았지?” / 까망이가 콧수염을 까닥 까닥 움직였다. 내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았다. / “너 배고파서 왔구나.”
나는 찬장 속에서 식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까망이 앞에 놓아 주었다.

1) ‘나’(더덕)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를 참고하여 쓰시오.

⇒

2) (나)~(다)의 내용을 참고하여, ‘나’(더덕)가 윗범실에 와서 살게 된 사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쓰시오.

⇒

3) 부엌에서 만난 ‘나’(더덕)의 친구는 누구인지 (라)에서 찾아 쓰시오.

⇒

독해력 짱짱맨 되기 ②

이름 :

💡 다음 〈산골 아이 나더덕〉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더덕아, 땅콩 할머니네 다녀와라.”

아빠는 호박전을 접시에 담아 주었다.

땅콩 할머니는 우리와 둘도 없는 이웃사촌이다.

(나) 가만히 들어 보니 은혜 깊은 호랑이 이야기다. 그러나 책으로 보는 것보다 땅콩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실감 나고 재미있다.

(다) 오늘은 예랑이 집에 가는 날이다.

일주일에 하루, 매주 목요일이면 나는 예랑이네 집에서 공부를 한다. 홈스쿨링을 하는 거다.

(라) 모시떡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우리는 공부를 했다. 오늘의 공부는 좋아하는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줄거리를 얘기해 주는 거다. 얘기가 끝나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한다.

1) ‘나’(더덕)에게 ‘땅콩 할머니’는 어떤 존재인지, (가)~(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쓰시오.

⇒

2) ‘나’(더덕)가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라)에 소개된 내용을 예로 들어 쓰시오.

⇒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①

이름 :

💡 다음 〈산골 아이 나더덕〉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빠는 엄마에게 저 주지 못한 게 후회가 되는 거 같았다.

“지금이라도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고 엄마랑 같이 살면 안돼?”

“지금은 이미 늦었어. 엄마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거든.”

뚝. / 그때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던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면 우리와 같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 “그래, 그렇게 되었어. 엄마는 이제 혼자야. 완전히 혼자라고. 은영이 너 하나만 키우며 혼자 살 거야.”

엄마는 ‘혼자’라는 낱말에 힘을 주며 몇 번씩 반복했다. 엄마는 그 아저씨와 헤어진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아빠와 다시 합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비록 엄마가 혼자 살 거라고 다짐을 하듯 말하지만, 역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잘했다.

1) (가)를 참고하여, ㉠의 의미를 짐작하여 쓰시오.

⇒

2) (나)에서 엄마의 말을 들은 ‘나’(더덕)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가)~(나)에 드러난 ‘나’(더덕)의 생각을 참고하여 쓰시오. .

⇒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②

이름:

💡 다음 〈산골 아이 나더덕〉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들고양이는 단박에 땅콩 할머니와 친구가 된 게 틀림없었다. 나와 까망이가 한눈에 친구가 된 것처럼.

“더덕이 니 이상하. 쥐는 사람한테 해롭고 고양이는 사람한테 이로운 거여. 니 똑바로 알아야 혀.”

땅콩 할머니는 들고양이를 안고 버섯 농장 안으로 들어갔다. 정말 큰일 났다. 들고양이와 까망이가 숨바꼭질 할 때마다 ㉠까망이를 어떻게 지켜 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나) ㉡나는 엄마를 세 번이 아니라 열 번이나 불렀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엄마 얼굴이 또렷이 나타났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더덕아, 엄마도 더덕이가 보고 싶어.”

눈앞에 있는 엄마는 나를 ‘은영’이가 아닌 ‘더덕’이로 불러 주었다.

1) ‘나’(더덕)가 ㉠과 같이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더덕)와 ‘까망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쓰시오.

⇒

2) ㉡에 드러난 ‘나’(더덕)의 행동으로 보아, ‘나’(더덕)는 어떤 마음인지 ‘나’(더덕)의 마음을 짐작하여 쓰시오.

⇒

사고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이름 :

💡 다음 〈산골 아이 나더덕〉에 제시된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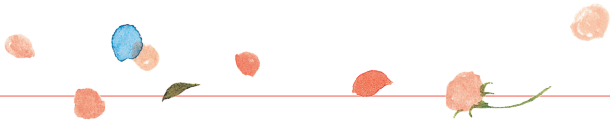
1) 옆의 그림은 어떤 장면인가요?

⇨

2) 옆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

3) 위의 그림의 '나'(더덕)처럼 자신도 산골에서 자연과 함께 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살아갈지 떠올려 보고,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그려 보시오.



A series of horizontal red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18 evenly spaced lines extending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정답과 해설

3쪽	<p>(예시답안) 1) 한 여자 아이가 우뚝 솟은 바위 위에 앉아 있고 그 주변에는 시골 풍경이 그려져 있다.</p> <p>2) 이름이 '나더덕'인 점이 재미있고 신기했다. / 산골 아이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했다.</p> <p>3) 한적한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진다.</p> <p>4) 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이가 산골에 살면서 자연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다.</p>
4쪽	1) ①: 종주먹 ②: 발돋움 ③: 합죽대며 ④: 아무지게 2) 통
5쪽	1) ①: 입에 침이 마르도록(다) : ④ ②: 눈 깜짝할 새 : ① ③: 허를 끝끝 찢(차)다 : ③ ④: 눈이 빠지게 기다렸(리)다 : ② 2) 가뭄, 콩
6쪽	1) ①(가)와 ②(나)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 : -쟁이 ③의 뜻 : 엄살을 잘 부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④의 뜻 : '싸움꾼'을 낮잡아 이르는 말. 2)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함.
7쪽	1)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자연에서 배울 게 많기 때문이다. 2) 교통사고를 낸 아빠가 감옥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취직이 안 되자 '나'(더덕)를 데리고 농사를 지으며 살기 위해 뒷범실로 오게 되었다. 3) (눈이 까만 쥐) 까망이
8쪽	1) 땅콩 할머니는 '나'(더덕)의 이웃사촌이면서 '나'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 할머니이다. 2) 예랑이네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 홈스쿨링을 하는데, 좋아하는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줄 거리를 얘기해 주는 식으로 공부를 하기도 한다.
9쪽	1) 아빠가 엄마와 화해하고 '나'(더덕), 아빠가 엄마와 함께 다시 같이 사는 것 2) (예시답안) '나'(더덕)는 엄마가 자신과 아빠와 함께 예전처럼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기대감이 생겼을 것 같다.
10쪽	1) '나'(더덕)에게 '까망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들고양이로부터 친구인 '까망이'를 어떻게 지켜 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예시답안) '나'(더덕)가 엄마를 세 번이 아니라 열 번이나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엄마를 무척 그리워하고 있다.
11쪽	(예시답안) 1) 아빠와 '나'(더덕)가 밤들이 놀라지 않게 장대로 풀숲을 툭툭 치면서 배부령산을 향해 걷고 있다. 2) '나'(더덕)와 아빠가 밤들에게 예의를 지키며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모습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진다. 3) 생략

응진 **주니어**

값 9,000원



ISBN 978-89-01-15249-3
ISBN 978-89-01-05987-7(세트)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